중년기 여성의 茶文化 교육요구도 연구

A Study on the Needs of Tea-Culture Education of Middle-aged Women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화산업학과
겸임교수 최 배 영*
석 사 김 영 인

Dep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Plural Professor : Choi, Bae-Young
Master : Kim, Young-In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해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needs and demands of middle-aged women concerning the educational contents of tea-culture, the managing methods of educational programs, and a plan to invigorate tea culture education as a whole. Here is the summary of the main results. 1) The need for tea-culture education scored an average of 4.14 / 5(maximum score). The actual needs for tea-culture education had varied according to the women's place of living, educational motives, and the desire to become lecturers in the future. That is, the actual needs for tea-culture education scored high among the groups who displayed strong personal motives to cultivate their inner minds and learn tea-culture seriously, groups who lived in Seoul·Taegu·Cheonju, and groups who wanted to become future lecturers. 2) The need for a systematic management of tea-culture educational programs scored an average of 4.10 / 5(maximum score). The need for a management of tea-culture educational programs varied according to the women's educational level and their desire to become future lecturers. That is, the need for a systematic management of tea-culture educational

* 대표저자, 연결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배영 (kb9112@hanmail.net)

programs scored high among groups whose educational level was high, and groups who wanted to become future lecturers. 3) The need for a plan to invigorate tea-culture education scored an average of 4.05 / 5(maximum score). The need for a plan to invigorate tea-culture education varied according to the women's place of living, educational level, the managing subject of educational organizations, the desire to become future lecturers. That is, the need for a plan to invigorate tea-culture education scored high among the groups who lived in Seoul·Taegu·Cheonju, groups whose educational level was high, groups who were members of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within universities, and groups who desired to become future lecturers.

Key Words : 중년기 여성(Middle aged women), 차문화(Tea culture), 교육요구도 (Need for education)

I. 서 론

자아실현과 여가를 통한 삶의 질 고양을 위한 평생교육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茶文化 교육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茶文化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다도 수련을 통해 덕을 쌓고 행실을 바르게 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주위의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있다.

茶文化 교육은 평생교육 가운데 생활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차의 성분과 효능이 부각되고 茶生活을 통한 정서순화, 원만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형성의 기능이 인식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茶文化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茶文化 교육의 필요성을 중년기 여성과 연관지어 논의한 김희자(2004)는 중년기 여성들이 심신의 안정된 기반을 확립하고 미래를 계획하고자 삶의 재충전을 기하는데 茶文化 교육은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하였다. 즉 신체적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심리적 적응이 요구되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재확립과 노년을 준비하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여가에 대한 계획과 사회활동이 필요한 중년기 여성들에게 있어 茶文化 교육은 의미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1980년대부터 茶文化 교육에 있어 중년기 여성들의 참여가 급속히 증가해왔다. 오늘날 茶文化 교육기관과 차회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중년기 여성들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경향신문,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기 여성과 茶文化 교육을 연계지은 연구는 사회교육 내지 평생교육의 실태조사에서 극히 일부 조명되어져왔을 뿐 사실상 茶文化 교육에 있어 중년기 여성들의 참여증가율에 수반되어야 하는 그들의 요구가 간과되어온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茶文化 교육이 중년기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의 평가와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茶文化 교육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년기 여성들이 교육생으로서 요구하는 茶文化 교육의 내용,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방법, 그리고 茶文化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조사 분석하는데 있다. 茶文化 교육에 관련된 중년기 여성들의 요구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교육내용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그리고 茶文化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중년기 여성을 위한 茶文化 교육의 의의

茶文化 교육은 개인의 정서순화, 원만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의 형성, 전통문화 전승의 기능을 지닌 생활문화교육의 일환으로 오늘날 중년기 여성들을 위한 사회교육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듯 확산되어가는 茶文化 교육에 있어 茶道란 하나의 광범한 문화로 인식된다. 이때의 문화는 곧 삶의 질을 의미하며 삶의 질은 경제와 사회전반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강력한 근원이 된다(이현숙, 2001; 6). 이로 인해 종합문화로서의 茶道와 茶道를 통한 茶文化 교육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년기 여성을 위한 茶文化 교육의 의의를 개인적 측면과 대인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측면을 보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중년기 여성에게 있어 茶文化 교육은 자신의 정체감 확립을 위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신라의 崔致遠(857~?)이 "茶를 얻었으니 근심을 잊게 되었다."고 한 것처럼 차를 마시면 시름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려 말의 충신 李崇仁(1347~1392)은 차를 통해 "하늘 아래 떠도는 恨을 씻어준다"고 했으며, 鄭夢周(1337~1392)는 "차 마시는 버릇으로 세상일을 잊는다."고 하였다. 추사의 동생이자 서예가인 金命喜(1788~?)는 "차의 향기와 맛을 따라 바라밀에 든다."고 하여 차를 마심으로써 현실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피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정영선, 2003; 50).

둘째, 대인적 측면에서 볼 때 중년기 여성을 위한 茶文化 교육은 茶를 통하여 禮를 배우고 더불어 사는 삶의 기본을 다지도록 이끌 수 있다. 茶를 다룰 때는 정성을 다하게 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됨으로써 겸손해지게 된다. 또한 茶는 손님께 대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의를 갖추게 된다. 조선 초 李穆(1471~1498)도 "차가 사람으로 하여금 禮를 갖추게 한다."고 하였으며, 李在誼(1785~1868)는 茶花를 禮花라고도 하였다. 艸衣(1786~ 1866)는 "차를 끓여 詩를 즐기는 손님에게 禮를 갖춰 대접한다."고 하였다(정영선, 2003; 340).

이상에서 보면 중년기의 茶生活은 상실되어가는 자아를 찾게 하고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 줌으로써 깨어있는 의식을 갖게 한다. 정동주(2003)는 茶를 통해 상대방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정신자세를 새롭게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김희자(2004)는 중년기 여성은 茶文化 교육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삶을 안정된 기반으로 확립하고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자 생활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을 재충전하고 마음자리를 정돈하며 미래를 설계함으로써 바람직한 부모상, 가정과 사회에서의 중추적 역할과 자아성취를 이루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중년기 여성의 茶文化 교육은 자신의 정체감을 재확립하고 禮를 세움으로써 개인의 생활은 물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이웃, 타인과의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지향하게 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중년기 여성의 茶文化 교육 현황

1) 茶文化 교육기관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들이 참여하는 茶文化 교육의 주요기관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지자체 관할 교육기관, 그리고 법인체로서 茶生活 교육기관으로 한하여 茶文化 교육

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2005년 현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되는 茶文化 관련 교육과정을 각 대학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이 일반교양과정, 전문가(자격증)과정,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일반교양과정은 웰빙 차와 명상, 차와 생활문화, 다도예절, 생활다례, 다도와 마음수련 등의 교과목명으로 1학기 즉 15주로 주당 2~3시간 정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자격증)과정

<표 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茶文化 교육

평생교육기관	교육 과정명/교육시간		자료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	자격증과정-전통차예절지도사(일반과정)/15주(주당 3시간)	1년 과정	http://edulife.kmu.ac.kr
	자격증 과정-전통차예절지도사(전문과정)/15주(주당 3시간)		
	일반교양과정- 웰빙 차와 명상/15주(주당 3시간)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	차와 생활문화/15주(주당 2시간)		http://lifelong.kookmin.ac.kr
금오공과 대학교평생 교육원	다도예절/15주(주당 2시간)		http://knut.kumoh.ac.kr
동서대학 사회 교육원	다도예절(입문반)/8주(주당 3시간)		http://www.dongseo-cei.ac.kr
	기독교다도예절(지도자과정)/24주(주당 4시간)		
	학점은행제 생활다도/15주(주당 4시간)		
부산여자 대학사회 교육원	전통다도/30주(주당 2시간)		http://sahoi.pwc.ac.kr
	차문화 테라피/40주(주당 3시간)		
	학점은행제 생활다도/15주(주당 2시간 30분)		
성신여자대학 교평생교육원	자격증과정- 전통차예절지도사 I/15주(주당 4시간)	1년 과정	http://www.sungshin.ac.kr/~continue
	자격증과정- 전통차예절지도사 II/15주(주당 4시간)		
	학점은행제-생활다도/15주(3시간)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생활예절과 다도/15주(주당 2시간)		http://lifetime.ajou.ac.kr
영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전통다도/15주(주당 2시간)		http://yulife.yu.ac.kr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본원)교양예술아카데미-생활다례/15주(주단 3시간)		http://www.ysu.ac.kr
	(본원)전문가아카데미-전통차예절지도사/15주(주당 3시간) /1년 과정 다도심화반/15주(주당 2시간)		
	(분원)교양예술아카데미-다도와 마음수련/15주(주당 3시간)		
	(분원)전문가아카데미-전통차예절지도사/15주(주당 3시간) /1년 과정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전통차예절지도사/15주(주당 3시간) /1년 과정		http://inform.wonkwang.ac.kr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다도와 예절/15주(주당 2시간)		http://www.honam.ac.kr
탐라대학교 평생교육원	다도교실/15주(주당 2시간)		http://www.tamna.ac.kr

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협의회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차예절지도사 과정으로 지칭되며, 90시간(1학기, 2학기) 주당 3~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혹은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자체에서 자격을 수여하는 지도자과정이 개설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학점은행제 과정은 생활다도가 개설되어 15주(1학기) 주당 3~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지자체 관할 교육기관

지자체 관할 기관에서의 茶文化 교육은 여성문화회관, 여성복지관 및 지역별 문화원이 담당하고 있다<표 2참조>. 이는 여성의 여가생활 및 소질개발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茶文化 행사나 茶文化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로 해석된다. 茶文化 교육은 생활예절 혹은 전통예절과 다도의 교과목명으로 3~6개월의 단기 일반교양과정으로 주당 2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주가 되고 있다.

(3) 법인체 교육기관

구영본(2001)의 연구결과<표 3참조>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체 茶生活 교육기관은 총 11개가 있으며, 이들은 전국적으로 차회 조직을 갖고 있다. 이들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분석해보면 茶生活기초과정은 1년 미만, 연구과정은 1~3년, 지도자과

<표 2> 지자체 관할기관의 茶文化 교육

구분	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자료
여성관련기관	대전시 여성회관	생활예절 및 다도	3개월	http//www.metro.daejeon.kr
	상주시 여성회관	전통예절 및 다도	6개월	http://forwaman.or.kr/kinfor/sangju.htm
	광양시 여성문화센타	다도	6개월	http://www.gwangyang.go.kr
	영주시 여성복지회관	다도교실	6개월	http://forwaman.or.kr/kinfor/youngju.htm
	안동시 여성복지회관	전통예절 및 다도	6개월	http://forwaman.or.kr/kinfor/andong.htm
	서울시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다도교실	1개월	http://www.oksoocwc.or.kr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전통다례	4개월	http://forwaman.or.kr/kinfor/kyungju.htm
	문경시 여성복지회관	전통예절 및 다도	5개월	http://forwaman.or.kr/kinfor/munkyung.htm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다도예절	4개월	http://woman.ipohang.org
	대구시 동구여성문화회관	다도 생활예절	4개월	http://www.dong.daegu.kr
	부산시 여성문화회관	생활예절 및 다도	3개월	http://www.metro.busan.kr
지역문화원	청도군 청도문화원	다도교실	5개월	http://www.cheongdo.or.kr
	구미시 구미문화원	전통예절 및 다도교실	5개월	http://www.gumicc.or.kr
	안동시 안동문화원	다도 및 예절교실	5개월	http://www.adcc.or.kr
	춘천시 춘천문화원	올바른 생활예절 다도	5개월	http://www.ccmunhwa.or.kr
	대전시 유성문화원	전통예절 및 다도	6개월	http://www.yuseong.or.kr
	대전시 동구문화원	전통예절 및 다도	3개월	http://www.dgcc.or.kr
	이천시 이천문화원	생활차 다례교실	6개월	http://www.cc2000.or.kr

<표 3> 법인체 기관의 茶文化 교육*

교육기관명(설립년도)	교육과정			
	차생활 (기초)과정	연구 과정	지도자 과정	지도자 연구과정
한국차인연합회(1979)	·	·	1년	·
한국다도협회(1983)	9개월	2년	1년	3년
한국차문화협회(1991)	6개월	1년	2년	·
한국차생활문화원(1995)	6개월	1년	2년	3년
명원문화재단(1995)	6개월	1년 6개월	4년	3년
예명원(1996)	·	3년	1년	·
동다송문화원(1997)	6개월	·	1년	· ·
우리차문화연합회(1998)	·	·	1년	6개월
초암차회(1999)	10개월	1년	2년	2년
명전예다원(2000)	6개월	1년 6개월	1년 6개월	2년
일지암(초의)차문화연구원(2000)	2년	2년	2년	·

* 자료: 구영본(2001)."韓國 茶生活 敎育場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9.

정은 1~4년의 과정으로 운영되며, 몇몇 기관은 2~3년의 지도자 연구과정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에서 茶文化 교육기관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지자체 관할 교육기관, 법인체 茶生活 교육기관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茶文化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대별될 수 있다. 첫째 세 곳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교양과정, 둘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법인체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가(자격증) 혹은 지도자 과정, 셋째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점은행제과정이 있다. 이 가운데 학점은행제과정은 6개월 미만(1학기), 일반교양과정은 3개월~1년 미만의 기초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가(자격증)과정은 1년 이상, 그리고 법인체 교육기관의 지도자(지도자연구)과정은 1~7년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 茶文化 교육내용

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은 교육기관의 교과목명과 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의 역량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지자체 관할기관, 법인체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년 미만의 茶文化 기초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한 사례씩 정리해 살펴보았다<표 4참조>.

세 교육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茶文化 교육의 공통된 내용은 차 혹은 다도의 개념, 행다법, 차의 종류, 성분 및 효능, 예절(생활예절 혹은 전통예절) 등이며, 차이점으로는 각 기관의 교과목 명칭에 따라 웰빙 생활과 명상, 가정의례(관·혼례) 등을 茶文化와 연계하여 교육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한편 교육과정의 구성 면에서 이론교육으로는 차의 정신, 다도의 개념, 차의 종류, 성분과 효능, 역사, 예절의 내용과 의미 등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표 4> 교육기관별 茶文化 교육내용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웰빙 차와 명상 교육내용*	대전시 여성회관 생활예절 및 다도 교육내용*	법인체 동다송문화회 차문화 기초과정 교육내용**
오리엔테이션	예절의 시작은 나부터	다도란 무엇인가?
명상을 위한 자세 교정	차란? 차 잎 따기	전통예절과 우리 옷 바로 입기
행복한 삶이란(기본 행다편)	관, 계례(성년례)의미	실용다법의 기본자세
지금 건강관리센터에서는,,	한복 바르게 입기	차를 우려마시는 기본자세
내 건강기법(비만치유 명상)	예절의 필요성 예절에서 지켜야할 원칙	차나무의 형상
생활차 다법 익히기	세시풍습(단오)	煎茶 생활다례
차 효능과 음용법	차의 정신	차의 종류
건강음식	바르게 서기, 걷기, 앉기 (차건 만들기)	차의 성분과 효능
스트레스 관리 훈련	물 알맞게 끓이기 손님과 차 마시는 자리	구용예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심리명상	절에 대한 예절(배례법), 매듭	계절에 맞는 차생활
명상과 차가 주는 웰빙 생활	차의 성분과 효능	차문화사
명상과 차생활 즐기기	차의 종류	이론 및 실기
건강 · 웰빙 프로그램	차의 원산지와 분포	-
현장문화체험(우리 함께 떠나요)	혼례의 의미	-
국제예절 및 생활예절	말차(가루차)	-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종강	중국차(발효차)	-

* 자료: 각 기관별 차문화 기초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정리하여 제시함.

** 자료: 구영본(2001).“韓國 茶生活 敎育場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5.

실습교육으로는 여러 가지 행다 방법이나 차의 음용방법, 예절실기(몸가짐 자세, 절, 한복 입기) 등이 행해지고 있었다.

3. 선행연구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茶文化 교육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교육으로서의 법인체 茶生活 교육장의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내용의 모델을 예시한 구영본(2001)의 연구와 현행 다례교육에 대한 내용분석을 토대로 평생교육차원에서 인간발달단계에 따른 중년기의 다례교육모델을 제시한 김희자(2004)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茶文化 교육의 기초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구영본(2001)은 茶生活 교육장에서는 체계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내용은 공개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6개월의 기초과정교육 내용을 모델로 제시하였다. 즉 茶生活 기초과정을 교양, 차생활, 예절, 실기로 구분하고 교양에는 차의 종류별 음다법, 한국의 세시풍속, 전통음악의 이해, 다도철학을 포함시켰다. 차생활 교육내용에는 행다례법 실

기(차생활 실용다법), 차문화사, 차의 종류, 차의 과학(차의 성분, 효능)을 포함하고, 예절교육내용에는 기본예절, 예절의 의미와 절하는 마음, 한국복식의 이해, 우리 절의 종류와 실기, 현대인의 인사예절로 구성하였다. 실기 교육내용에는 손님을 초대하여 차 내어보기, 다과(다식)만들기, 차와 제다실습 혹은 茶文化 유적기행을 포함하였다.

김희자(2004)는 다례교육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인간발달단계에 따라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며 연계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례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1년 과정 연간 48주 주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다례를 생활 속에 유연하게 접목하여 정서적으로 여유 있고 안정된 문화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함을 논하면서 중년기 다례교육의 내용을 이론과 실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이론을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으로는 차의 역사, 다경, 찻자리에서의 마음가짐과 몸가짐, 한복과 인사예절, 다도예절, 제다방법, 음다법의 시대적 고찰, 전통예절과 현대예절의 역사적 변천과 필요성, 연중행사와 음식예절, 도자기의 변천사와 차에 따른 도자기의 선택, 생활다례 등이었다. 실기교육내용으로는 차 우리기와 차 마시기, 찻자리에서의 걷고 앉고 서기, 한복입기와 절하기, 가족과 함께 하는 찻자리, 손님과의 찻자리 초대, 차 유적지 답사, 차 만들기, 절기음식(다식) 만들기, 찻잔 만들기 등이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중년기 여성을 위한 茶文化 교육은 체계적인 내용구성이 필요하며,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茶文化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중년기 여성들의 요구를 조사, 분석하는 작업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茶文化 교육의 내용과 운영방법 및 활성화 방안 등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중년기 여성의 茶文化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년기 여성의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중년기 여성의 茶文化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오늘날 茶文化 교육기관의 교육생 중 중년기 여성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가운데 1년 이상 茶文化 교육수강경험을 가진 40~50대 주부들을 임의표집 하였다. 2005년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거하여 설문지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2005년 4월 2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서울, 대전, 대구, 전주에 소재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지자체 관할 교육기관, 법인체 차생활 교육기관 등에 배부하고,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330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통해 지역별 茶文化 교육기관의 주체를 살펴보면 서울과 전주는 법인체 교육기관, 대전은 지자체 관할 교육기관, 대구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법인체 교육기관 소속 중년기 여성들에 의한 설문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5> 지역별 회수 설문지

교육기관 지역 / 주체	서울	대전	대구	전주	전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13	19	32	22	86
지자체 관할 교육기관	12	53	6	-	71
법인체 교육기관	77	13	25	58	173
전체	102	85	63	80	330

3. 조사도구

본 연구의 설문내용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문항(거주지역, 종교, 학력, 가족형태, 소속교육기관운영주체, 교육수강기간, 교육동기, 향후강사활동여부), 희망하는 茶文化 기초교육과정에 관한 3문항(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매체), 茶文化 교육내용 20문항,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운영 14문항, 茶文化 교육의 활성화방안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茶文化 교육내용 요구도

茶文化 교육내용 요구도는 구영본(2001), 김희자(2004)가 모델로서 제시한 茶文化 교육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20개 문항의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여 20점~100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茶文化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茶文化 교육내용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Eigen value가 1 이상인 것으로 선택된 2개 요인을 추출하였다<표 6참조>. 요인 1은

<표 6> 茶文化 교육내용의 요인분석

요인	문항	요인적재치	Eigen value	Alpha
요인 1. 茶文化 기본교육	차에 담긴 정신	.816	7.81	.87
	차인의 마음가짐	.804		
	차의 역사	.758		
	차의 분류	.726		
	차와 예절	.708		
	차의 성분과 효능	.628		
요인 2. 茶文化 생활교육	손님초대에 차 대접하기	.733	1.91	.89
	차 만들기	.692		
	가족과 함께 차 마시기	.692		
	차의 종류별 차 우리기	.664		
	다식 만들기	.660		
	차의 종류별 차 맛 구별하기	.641		
	행다 발표	.635		
	대용차	.606		
	차문화 유적답사	.604		
	서양의 차	.503		
	동양의 차	.501		
	차 문헌 강독	.474		
	다구	.452		
	한국의 차	.440		

<표 7>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운영의 요인분석

요인	문항	요인적재치	Eigen value	Alpha
요인1.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성	담당강사는 茶文化 분야의 전문가이어야 한다	.722	5.66	.81
	茶文化 교육에 관한 이론은 체계적이어야 한다	.698		
	교육내용은 실제 茶생활에 유용해야 한다	.675		
	茶文化 교육의 강의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663		
	茶文化 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626		
요인2. 교육시설 이용의 용이성	교육장소는 오고가는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807	1.53	.76
	교육기관의 안내 및 관리직원은 친절해야 한다.	.751		
	교육비는 저렴해야 한다	.746		
	茶文化 강의내용은 흥미로워야 한다	.610		
	교육장소에는 다구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510		
요인3. 프로그램 제공의 다양성	교육내용은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제공되어야 한다	.815	1.20	.74
	茶文化 교육관련 전문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677		
	교육내용 구성에는 수강생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664		
	茶文化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얻는 것이 용이해야 한다	.611		

茶文化 기본교육, 요인 2는 茶文化 생활교육으로 명명하였으며, 추출된 각 요인별 신뢰도는 茶文化 기본교육이 .87, 茶文化 생활교육이 .89로 나타났다.

2)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운영 요구도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운영 요구도 척도는 주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한 이기영 외(2003a)의 연구에서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14개의 문항은 각각 5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여 14점~7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운영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Eigen value가 1 이상인 것으로 선택된 3개 요인을 추출하였다<표 7 참조>. 이 가운데 요인 1은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성, 요인 2는 교육시설이용의 용이성, 요인 3은 프로그램제공의 다양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추출된 각 요인별 신뢰도는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성 .81, 교육시설이용의 용이성 .76, 프로그램제공의 다양성 .74로 나타났다.

3) 茶文化 교육의 활성화 방안 요구도

茶文化 교육의 활성화 방안 요구도 척도는 이기영 외(2003a)의 연구에서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5개 문항(전문 강사 양성, 지속적인 교류, 생활에의 활용기회, 단계별 체계화된 교육, 이수/자격증 수여)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여 5점~25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茶文化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84를 나타냈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茶文化 교육내용, 교육프로그램운영,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살펴보았고 茶文化 교육내용과 교육프로그램운영은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후 배경변인인 집단간 요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30.9%, 대전 25.8%, 전주 24.2%, 대구 19.1%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있어서는 불교가 50.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천주교 17.9%, 무교/기타 16.0%, 기독교 15.8% 순이었다. 학력은 대졸이 63.3%로 가장 많으며, 고졸이하 20.0%, 대학원졸 16.7%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있어서는 부부+자녀의 가족 67.9%, 부부만 사는 가족 17.9%, 부모+부부+자녀로 구성된 가족 10.6%였다.

조사대상자의 茶文化 교육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소속교육기관의 운영주체, 교육수강기간, 교육동기, 향후 강사활동여부의사를 조사하였다. 먼저 소속교육기관의 운영주체에 있어서는 법인체가 52.4%로 가장 많으며, 평생교육원 26.1%, 지자체 21.5%로 나타났다. 교육수강기간으로는 1~3년 미만이 60.3%로 가장 많고,

<표 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거주지역	서울	102(30.9)	소속 교육기관 운영주체	평생교육원	86(26.1)
	대전	85(25.8)		지자체	71(21.5)
	대구	63(19.1)		법인체	173(52.4)
	전주	80(24.2)	교육수강기간	1~3년 미만	199(60.3)
종교	기독교	52(15.8)		3~5년 미만	72(21.8)
	불교	166(50.3)		5년 이상	59(17.9)
	천주교	59(17.9)	교육동기**	깊이 있게 배우려고	171(51.8)
	무교/기타	53(16.0)		마음의 수양을 위해	73(22.1)
학력	고졸이하	66(20.0)		자녀에게 모범	11(3.3)
				가족간 화목도모	7(2.1)
	대졸	209(63.3)		사회적 대인관계	30(9.1)
	대학원졸	55(16.7)		강사가 되려고	37(11.2)
가족형태*	부부+자녀	224(67.9)	향후강사 활동여부	활동하기 원함	204(61.8)
	부모+부부+자녀	35(10.6)		활동 원하지 않음	125(37.9)
	부부	59(17.9)			
전체		330(100.0)	전체		330(100.0)

* 무응답을 제외한 분석결과임.

** 이후 분석에서 교육 동기는 개인적 측면(깊이 있게 배우려고, 마음의 수양을 위해)과 대인적 측면 (자녀에게 모범, 가족간 화목도모, 사회적 대인관계, 강사가 되려고)으로 나누어 살펴봄.

3~5년 미만 21.8%, 5년 이상 17.9%였다. 교육 동기로는 개인적으로 茶文化를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서가 51.8%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마음의 수양을 위해 22.1%, 茶文化 분야의 교육 강사로 활동하려고 11.2%, 사회에서 폭넓은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 9.1%, 자녀들에게 교육적으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 3.3%, 가족간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2.1%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강사활동여부에 대해서는 활동을 원하는 경우가 61.8%로 원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9> 희망하는 茶文化 기초교육과정기간, 교육시간, 교육매체

구분		N(%)
교육기간	6개월 미만	75(22.7)
	6개월~1년 미만	190(57.6)
	1~2년	45(13.6)
	3년 이상	20(6.1)
교육시간	1주일에 1번(총 2시간)	159(48.2)
	1주일에 2번(총 4시간)	141(42.7)
	1주일에 1번(총 4시간)	17(5.2)
	1주일에 2번(총 8시간)	13(3.9)
교육매체	비디오	138(41.8)
	컴퓨터	63(19.1)
	환등기/슬라이드	58(17.6)
	그림 혹은 사진자료	70(21.2)
전체		330(100.0)

한편 1년 이상 茶文化 교육생으로서의 경험을 가진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茶文化 기초교육과정의 적절한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매체를 조사하였다.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기간에 있어서는 6개월~1년 미만이 57.6%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으며, 교육시간에 있어서는 1주일에 1번(총 2시간)과 1주일에 2번(총 4시간)이 각각 48.2%와 42.7%로 많은 응답을 나타냈다. 이 같은 茶文化 기초교육과정의 교육기간과 교육시간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견해는 현재 6개월 미만 주당 2~3시간의 茶文化 기초교육과정을 일반교양과정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지자체 관할기관이 앞으로 교육기간 설정에 있어 중년기 여성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재검토를 요하는 바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茶文化에 관한 이론 강의에 병행되어 사용되어야 하는 교육매체에 있어서는 비디오 41.8%, 그림/사진자료 21.2%, 컴퓨터 19.1%, 환등기/슬라이드 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2. 茶文化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

1) 茶文化 교육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

중년기 여성들이 요구하는 茶文化 교육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총 20개의 항목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표 10참조> 茶文化 교육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도는 평균 4.14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20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것은 차에 담긴 정신(4.42)과 차인의 마음가짐(4.42)이었다. 이는 茶를 통한 정신과 마음의 수양을 지향하는 茶生活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김희자(2004)의 연구에서 중년기의 다례교육은 삶의 안정된 기반을 확립하고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자 생활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을 재충전하고 마음자리를 정돈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밝힌 바와 견해를 같이 한다.

다음으로 요인분석 결과<표 6참조>에 의거하여 중년기 여성들의 茶文化 교육내용의 영역별 요구도를 표 10에서 살펴보면 茶文化 기본교육이 4.34로 茶文化 생활교육 3.95 보다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표 10> 茶文化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 (N=330)

요인	문항	M	SD	영역별 요구도
요인 1. 茶文化 기본교육	차에 담긴 정신	4.42	.67	4.34 (.51)
	차인의 마음가짐	4.42	.64	
	차와 예절	4.40	.59	
	차의 성분과 효능	4.34	.65	
	차의 분류	4.27	.66	
	차의 역사	4.22	.74	
요인 2. 茶文化 생활교육	한국의 차	4.30	.77	3.95 (.51)
	차의 종류별 차 우리기	4.20	.72	
	다구	4.11	.78	
	차의 종류별 차 맛 구별하기	4.07	.79	
	차 만들기	4.03	.75	
	손님초대에 차 대접하기	4.02	.75	
	가족과 함께 차 마시기	4.01	.75	
	차 문헌 강독	3.90	.89	
	차 문화 유적 답사	3.89	.77	
	다식 만들기	3.87	.76	
	동양의 차(예: 중국, 일본)	3.85	.74	
	서양의 차(예: 영국)	3.79	.81	
	행다 발표	3.71	.84	
	대용차(예: 허브티, 커피 등)	3.64	.90	
전체		4.14	.47	

먼저 茶文化 기본교육에서는 차에 담긴 정신(4.42), 차인의 마음가짐(4.42), 차와 예절(4.40), 차의 성분과 효능(4.34), 차의 분류(4.27), 차의 역사(4.22)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茶文化 생활교육에 대한 요구도에 있어서는 한국의 차(4.30), 차의 종류별 차 우리기(4.20), 다구(4.11), 차의 종류별 차 맛 구별하기(4.07), 차 만들기(4.03), 손님초대에 차 대접하기(4.02), 가족과 함께 차 마시기(4.01), 차 문헌 강독(3.90), 차 문화 유적답사(3.89), 다식 만들기(3.87), 동양의 차(3.85), 서양의 차(3.79), 행다 발표(3.71), 대용차(3.64)의 순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여성들이 茶文化에 관한 기본교육내용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茶文化 교육은 구영본(2001)이 제안한 바와 같이 차인의 정신이나 마음가짐, 예절에 관한 茶文化의 내면적 측면과 차의 역사, 분류, 성분과 효능 등 차의 본질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그를 토대로 한국의 차, 차의 종류별 차 우리기, 다구, 차의 종류별 차 맛 구별하기, 차 만들기 등의 생활교육을 적절히 병행할 수 있도록 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동주(2003)는 茶文化 교육이 내용보다 겉모양새를 강조하고 틀에 박힌 형식을 고집하게 되면 차의 세계에 대한 마음 닦기가 깊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茶文化 교육이 외형적인 行茶

만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참여자의 지적 욕구와 교육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게 될 우려를 낳을 수 있다. 茶文化 기본교육에 대한 중년기 여성들의 높은 요구를 보완함으로써 茶文化 생활교육과의 조화로운 내용구성과 시간안배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표 11> 茶文化 기본교육 요구도의 집단간 차이 (N=330)

변인		茶文化 기본													
		차의 역사		차에 담긴 정신		차의 분류		차의 성분/효능		차인의 마음가짐		차와 예절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거주 지역	서울(102)	4.28A	.71	4.61A	.53	4.29	.62	4.34	.72	4.49A	.52	4.49A	.52	4.43A	.42
	대전(85)	4.04B	.81	4.16B	.80	4.20	.65	4.25	.71	4.23B	.70	4.24B	.67	4.18B	.59
	대구(63)	4.25AB	.70	4.43A	.65	4.33	.66	4.47	.50	4.45AB	.56	4.45AB	.57	4.39A	.49
	전주(80)	4.32A	.72	4.41A	.62	4.26	.74	4.34	.60	4.40AB	.76	4.40AB	.59	4.36A	.54
	F값	2.55*		7.17***		0.55		1.32		4.60**		3.17*		3.99**	
종교	기독교(52)	4.27	.74	4.56AB	.54	4.31	.58	4.29	.67	4.48	.61	4.44	.57	4.39	.46
	불교(166)	4.27	.78	4.34B	.68	4.25	.63	4.31	.63	4.36	.59	4.37	.53	4.30	.47
	천주교(59)	4.33	.60	4.59A	.56	4.27	.69	4.41	.50	4.59	.53	4.47	.57	4.45	.42
	무교/기타(53)	4.23	.75	4.32B	.83	4.32	.80	4.38	.84	4.34	.88	4.36	.79	4.32	.73
	F값	0.84		3.21*		0.23		0.43		2.44		0.60		1.34	
학력	고졸이하(66)	4.08	.79	4.23B	.76	4.30	.61	4.36	.62	4.36	.69	4.33	.64	4.28	.54
	대졸(209)	4.23	.72	4.45A	.66	4.24	.70	4.33	.66	4.42	.64	4.40	.59	4.35	.52
	대학원졸(55)	4.38	.76	4.55A	.54	4.35	.55	4.35	.67	4.45	.60	4.45	.54	4.42	.44
	F값	2.59		3.89*		0.60		0.07		0.32		0.67		1.17	
가족 형태	부부자녀(224)	4.23	.73	4.43	.65	4.30	.65	4.34	.66	4.42	.63	4.43	.57	4.36	.48
	부모부부자녀(35)	4.22	.83	4.23	.81	4.31	.90	4.37	.84	4.26	.89	4.26	.82	4.28	.79
	부부(59)	4.24	.80	4.46	.70	4.10	.55	4.29	.49	4.44	.53	4.37	.49	4.32	.44
	F값	0.37		1.49		2.27		0.22		1.03		1.36		0.65	
교육 기관 운영 주체	평생교육원(86)	4.33	.58	4.43	.58	4.35	.63	4.38	.60	4.36	.70	4.31	.62	4.36	.54
	지자체(71)	4.07	.78	4.25	.75	4.20	.58	4.28	.61	4.33	.66	4.35	.55	4.25	.49
	법인체(173)	4.26	.73	4.47	.69	4.28	.70	4.35	.69	4.49	.62	4.48	.59	4.39	.51
	F값	2.55		2.39		0.92		0.42		1.83		2.74		1.70	
교육 수강 기간	1년-3년미만(199)	4.23	.71	4.40	.65	4.32	.61	4.35	.67	4.43	.62	4.41	.58	4.36	.48
	3년-5년미만(72)	4.19	.78	4.43	.67	4.17	.67	4.33	.53	4.40	.55	4.38	.52	4.32	.47
	5년이상(59)	4.24	.82	4.46	.75	4.25	.80	4.31	.73	4.37	.81	4.41	.72	4.34	.67
	F값	0.08		0.17		1.39		0.12		0.21		0.08		0.16	
교육 동기	개인적(244)	4.26	.72	4.47	.60	4.30	.60	4.35	.64	4.47	.57	4.43	.54	4.38	.44
	대인적 (85)	4.11	.79	4.27	.82	4.18	.80	4.31	.69	4.26	.80	4.31	.71	4.24	.67
	t값	2.81		5.48*		2.34		0.27		6.73**		2.80		4.93*	
향후 강사 활동 여부	활동원함(204)	4.25	.77	4.45	.70	4.31	.69	4.40	.62	4.47	.61	4.48	.58	4.39	.52
	원하지않음(125)	4.18	.69	4.37	.62	4.20	.60	4.24	.70	4.33	.69	4.27	.59	4.27	.49
	t값	0.52		1.05		2.31		4.54*		3.58		9.40**		4.67*	

*P<.05 **P<.01 ***P<.001 (A, B, C에 대한 표기는 Duncan 분석결과를 나타냄)

2) 배경변인에 따른 茶文化 교육내용 요구

배경변인에 따른 茶文化 교육내용의 영역별 요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 표 12>와 같다.

① 茶文化 기본교육의 요구도

茶文化 기본교육의 요구도 가운데 차의 역사에 관한 교육은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서울과 전주지역이 대전과 대구지역 보다 차의 역사에 대한 교육에 더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차에 담긴 정신에 대한 교육은 거주지역(P<.001), 종교(P<.05), 학력(P<.05), 교육동기(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대구·전주지역 거주 집단에서, 천주교 집단에서, 대졸과 대학원졸 집단에서, 개인적인 茶文化 교육동기를 가진 집단이 차에 담긴 정신에 대한 교육에 더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茶文化를 깊이 있게 배우고, 마음의 수양을 쌓고자 하는 개인적 교육동기가 차에 담긴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적 요구와 상호 연관됨을 유추할 수 있다.

차의 분류에 대한 교육은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차의 성분 및 효능에 관한 교육은 향후 강사활동여부(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향후 강사로서의 활동을 원하는 집단에서 차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교육에 높은 요구도를 반영하였다. 이는 앞으로 茶文化 분야의 교육 강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차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시각을 갖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차인의 마음가짐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는 거주지역(P<.01)과 교육동기(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개인적인 茶文化 교육동기를 가진 집단에서 차인의 마음가짐에 관한 교육에 더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차와 예절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는 거주지역 (P<.05)과 향후 강사활동여부(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서울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향후 강사활동을 원하는 집단에서 차와 예절에 관한 교육에 더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이상 茶文化 기본교육 영역에 있어 집단간의 차이를 요약하면 조사대상자의 가족형태, 소속교육기관의 운영주체, 교육수강기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거주지역, 종교, 학력, 茶文化 교육동기, 향후 강사활동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茶文化 기본교육내용 전체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거주지역, 茶文化 교육동기, 향후 강사활동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서울·대구·전주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茶文化를 깊이 있게 배우고 마음의 수양을 쌓고자 하는 개인적 동기를 가진 집단에서, 그리고 향후 강사활동을 희망하는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茶文化 기본교육에 높은 요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② 茶文化 생활교육의 요구도

茶文化 생활교육의 요구도 가운데 다구에 대한 교육은 교육기관의 운영주체(P<.05)와 향후 강사활동여부(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법인체 소속의 집단이 평생교육원이나 지자체 소속의 집단에 비해, 그리고 향후 강사활동을 희망하는 집단이 희망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다구 교육에 대해 더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서양의 차에 대해서는 집단간의 요구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동양의 차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거주지역(P<.05)과 교육기관의 운영주체(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서울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자자

<표 12> 茶文化 생활교육 요구도의 집단간 차이 (N=330)

변인		茶文化 실습															
		차의 종류별 차 맛 구별하기		다식 만들기		차 만들기		가족과 함께 차 마시기		손님초대 시 차 대접하기		차 문화 유적답사		행다 발표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거주 지역	서울(102)	3.99	.88	3.85	.71	3.93	.84	4.09	.76	4.05	.74	3.96A	.72	3.79A	.84	3.99	.53
	대전(85)	4.12	.70	3.71	.75	4.02	.65	4.01	.73	4.08	.73	3.67B	.92	3.40B	.89	3.88	.48
	대구(63)	4.28	.61	4.02	.62	4.02	.68	3.80	.78	3.92	.74	3.92A	.65	3.87A	.75	3.99	.43
	전주(80)	4.00	.79	3.96	.85	4.12	.81	4.04	.75	4.01	.82	3.96A	.71	3.76A	.79	3.95	.56
	F값	2.19		2.55		0.91		1.96		0.62		2.83*		5.12**		0.98	
종교	기독교(52)	4.04	.84	3.90	.72	4.02	.75	4.10	.75	4.10	.66	4.04	.68	3.83	.71	4.04	.46
	불교(166)	4.11	.78	3.95	.72	4.06	.67	3.98	.73	3.94	.76	3.87	.79	3.68	.80	3.93	.49
	천주교(59)	4.07	.72	3.76	.73	3.86	.88	4.03	.64	4.07	.64	3.88	.59	3.78	.74	3.96	.46
	무교/기타(53)	3.98	.84	3.74	.94	4.11	.85	3.98	.93	4.08	.90	3.81	.94	3.58	1.12	3.94	.64
	F값	0.43		1.53		1.26		0.35		1.73		0.88		0.93		0.58	
학력	고졸이하(66)	4.11	.68	3.77	.70	4.03	.82	3.83	.90	3.97	.86	3.83	.87	3.59	.89	3.92	.59
	대졸(209)	4.11	.72	3.89	.76	4.00	.74	4.04	.68	4.04	.69	3.90	.70	3.73	.79	3.98	.47
	대학원졸(55)	3.87	1.09	3.91	.84	4.11	.74	4.09	.78	4.02	.85	3.91	.91	3.76	.94	3.93	.55
	F값	0.12		0.49		0.67		0.10		0.79		0.81		0.44		0.44	
가족 형태	부부자녀(224)	4.10	.78	3.84	.79	4.06	.70	4.04	.76	4.04	.76	3.90	.76	3.75A	.85	3.97	.52
	부모부부자녀(35)	4.00	.77	3.86	.88	3.89	.87	3.97	.79	3.91	.82	3.63	1.00	3.34B	.94	3.89	.58
	부부(59)	4.05	.68	3.93	.61	4.02	.73	3.88	.72	4.00	.72	3.97	.64	3.68A	.73	3.92	.42
	F값	0.33		0.31		0.87		1.07		0.48		2.33		3.68*		0.49	
교육 기관 운영 주체	평생교육원(86)	4.02	.81	3.88	.77	3.95	.81	3.91	.79	4.03	.80	3.79	.70	3.69	.84	3.90	.53
	지자체(71)	4.22	.61	3.70	.70	4.03	.58	4.00	.74	4.12	.67	3.75	.86	3.52	.75	3.92	.43
	사단법인(173)	4.08	.81	3.95	.78	4.08	.78	4.06	.74	4.02	.75	3.98	.77	3.78	.85	4.01	.51
	F값	1.12		2.33		0.83		1.26		0.39		2.94		2.32		0.22	
교육 수강 기간	1년-3년미만(199)	4.15	.72	3.89	.73	4.06	.72	4.02	.74	4.11	.71	3.88	.73	3.70	.82	3.97	.49
	3년-5년미만(72)	3.93	.76	3.85	.71	3.90	.83	3.97	.71	3.89	.72	3.88	.77	3.65	.81	3.91	.49
	5년이상(59)	4.00	1.00	3.83	.93	4.07	.78	4.03	.83	3.92	.88	3.93	.91	3.80	.94	3.97	.58
	F값	2.30		0.21		1.26		0.13		2.99		0.12		0.50		0.41	
교육 동기	개인적(244)	4.09	.77	3.93	.76	4.07	.74	4.02	.72	4.05	.72	3.93	.77	3.78	.80	3.98	.51
	대인적 (85)	4.00	.83	3.71	.75	3.88	.78	3.98	.84	3,94	.84	3.96	.77	3.51	.92	3.88	.51
	t값	0.90		5.37*		4.12*		0.22		1.40		3.09		6.81**		2.66	
향후 강사 활동 여부	활동원함(204)	4.08	.82	3.93	.77	4.06	.71	4.09	.72	4.09	.71	3.94	.75	3.77	.83	4.00	.48
	원하지않음(125)	4.06	.73	3.76	.73	3.97	.82	3.86	.78	3.91	.80	3.80	.80	3.60	.84	3.88	.55
	t값	0.06		3.61		1.13		7.40**		4.32*		2.33		3.39		4.87*	

<표 12> 계속

변인		茶文化 실습													
		다구		동양의 차		서양의 차		한국의 차		대용차		차문헌		차의 종류별 차 우리기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거주 지역	서울(102)	4.16	.91	3.99A	.65	3.86	.80	4.45A	.64	3.65	.93	3.91	.86	4.24	.73
	대전(85)	3.91	.76	3.87AB	.69	3.78	.71	4.08B	.90	3.72	.85	3.74	.91	4.16	.67
	대구(63)	4.20	.73	3.83AB	.89	3.87	.95	4.33AB	.66	3.63	.88	3.97	.84	4.23	.62
	전주(80)	4.16	.64	3.68B	.70	3.66	.75	4.28AB	.82	3.58	.89	4.01	.87	4.16	.76
	F값	2.21		2.75*		1.11		3.69*		0.32		1.48		0.27	
종교	기독교(52)	4.13	.63	3.94	.61	3.94	.67	4.35	.74	3.88	.76	3.98	.90	4.17	.71
	불교(166)	4.05	.82	3.75	.80	3.73	.83	4.27	.76	3.60	.95	3.86	.90	4.20	.73
	천주교(59)	4.14	.80	3.97	.64	3.80	.87	4.37	.67	3.66	.76	3.93	.81	6.17	.72
	무교/기타(53)	4.21	.77	3.91	.77	3.79	.79	4.28	.93	3.51	.95	3.89	.93	4.25	.70
	F값	0.60		1.80		0.87		.32		1.82		0.28		0.13	
학력	고졸이하(66)	4.05	.83	3.79	.79	3.80	.81	4.17	.87	3.77	.76	3.97	.82	4.15	.73
	대졸(209)	4.13	.78	3.89	.72	3.79	.82	4.35	.71	3.65	.84	3.89	.84	4.22	.69
	대학원졸(55)	4.07	.72	3/75	.78	3.76	.77	4.27	.83	3.45	1.18	3.84	1.10	4.16	.83
	F값	0.38		1.08		0.04		1.55		1.92		0.36		0.34	
가족 형태	부부자녀(224)	4.07	.82	3.84	.79	3.83	.83	4.32	.78	3.68	.91	3.89	.91	4.22	.72
	부모부부자녀(35)	4.23	.60	3.86	.55	3.77	.65	4.11	.90	3.80	.72	4.03	.95	4.11	.76
	부부(59)	4.20	.52	3.81	.68	3.69	.73	4.32	.68	3.44	.86	3.78	.79	4.14	.71
	F값	1.18		0.05		0.66		1.11		2.30		0.87		0.59	
교육 기관 운영 주체	평생교육원(86)	4.00A B	.67	3.64B	.88	3.67	.90	4.29	.81	3.59	.91	4.00	.87	4.15	.77
	지자체(71)	3.93B	.80	3.90A	.68	3.83	.74	4.28	.80	3.75	.82	3.68	.91	4.18	.60
	법인체(173)	4.22A	.82	3.94A	.68	3.84	.80	4.35	.72	3.64	.93	3.93	.90	4.25	.71
	F값	4.04*		4.93**		1.20		0.29		0.55		2.39		0.65	
교육 수강 기간	1년-3년미만(199)	4.09	.82	3.86	.75	3.80	.77	4.30	.77	3.61	.88	3.87	.88	4.23	.70
	3년-5년미만(72)	4.07	.81	3.75	.69	3.68	.89	4.25	.84	3.69	.93	4.00	.80	4.19	.64
	5년이상(59)	4.22	.59	3.92	.77	3.86	.84	4.37	.69	3.66	.92	3.85	1.00	4.10	.86
	F값	0.79		0.89		0.94		0.42		0.24		0.64		0.74	
교육 동기	개인적(244)	4.09	.81	3.89	.74	3.82	.82	4.30	.73	3.64	.89	3.90	.88	4.22	.71
	대인적 (85)	4.13	.67	3.72	.75	3.72	.77	4.31	.86	3.64	.92	3.87	.91	4.13	.75
	t값	0.13		3.39		0.85		0.01		0.01		0.08		1.03	
향후강사 활동여부	활동원함(204)	4.18	.71	3.82	.77	3.79	.80	4.38	.70	3.73	.86	3.96	.90	4.22	.73
	원하지않음(125)	3.98	.86	3.88	.69	3.78	.82	4.18	.85	3.50	.94	3.80	.86	4.16	.70
	t값	4.80*		0.59		0.01		5.41*		4.78*		2.56		0.55	

*P<.05 **P<.01 ***P<.001 (A, B, C에 대한 표기는 Duncan 분석결과를 나타냄)

체와 법인체 소속의 집단에서 더 높은 요구도가 나타났다. 한국 차에 대한 교육은 거주지역(P<.05)과 향후 강사활동여부(P<.05)에 따라 요구도의 차이를 보여 서울에 거주하는 집단

에서 그리고 향후 강사활동을 하기 원하는 집단에서 더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대용차의 경우 향후 강사활동여부(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향후 강사활동을 원하는 집단이 원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차 문헌에 관한 교육, 차의 종류별 차 우리기와 차 맛 구별하기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다식 만들기와 차 만들기는 교육동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각각 P<.05 수준에서 개인적인 茶文化 교육동기를 가진 집단이 다식 만들기와 차 만들기에 대한 교육에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가족과 함께 차 마시기와 손님초대 시 차 대접하기는 향후 강사활동여부에 따라 각각 P<.01과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향후 강사활동을 희망하는 집단이 더 높은 요구를 나타냈다.

茶文化 유적답사의 경우 거주지역(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서울·대구·전주에 거주하는 집단이 대전에 거주하는 집단에 비해 茶文化 유적답사에 대한 더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행다 발표에 대한 교육은 거주지역(P<.01), 가족형태(P<.05), 교육동기(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서울·대구·전주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부부+자녀와 부부의 가족형태집단에서, 개인적인 茶文化 교육동기를 가진 집단에서 행다 발표에 대한 교육에 높은 요구를 나타냈다.

이상 茶文化 생활교육 영역에 있어 집단간의 차이를 요약하면 조사대상자의 종교, 학력, 교육수강기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거주지역, 가족형태, 소속교육기관의 운영주체, 교육동기, 향후 강사활동여부에 따라서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茶文化에 대해 깊이 배우고자 하는 개인적 동기를 가진 집단에서 다식 만들기, 차 만들기, 행다 발표에 관한 교육을, 향후 강사활동을 하기 원하는 집단에서 한국의 차, 대용차, 다구, 가족과 함께 차 마시기, 그리고 손님초대 시 차 대접하기 등에 대한 교육에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요구

1)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

중년기 여성들의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총 14개의 항목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표 13참조>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도는 평균 4.10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요인분석 결과(표 7참조)에 의거하여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운영의 영역별 요구도를 살펴보면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성 4.29, 교육시설이용의 용이성 4.04, 프로그램제공의 다양성 3.94의 순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4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것은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성 영역 중 교육 담당강사는 茶文化 분야의 전문가이어야 한다(4.35)로 이는 茶文化 교육인구의 급속한 팽창 가운데 보다 전문성을 갖춘 강사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반영한다고 하겠다. 다음 순위로 평균 이상의 높은 요구도를 나타낸 것은 茶文化 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어야 한다(4.30), 茶文化 교육에 관한 이론은 체계적이어야 한다(4.28), 茶文化 교육의 강의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4.27), 교육내용은 실제 茶 생활에 유용해야 한다(4.24)였다. 교육시설이용의 용이성 영역 가운데서는 교육장소에는 다구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4.15), 茶文化 강의내용은 흥미로워야 한다(4.12)에 평균 이상의 요구도가 나타

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요구도를 보인 것으로는 프로그램제공방법에 있어 교육내용구성에는 수강생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3.85)와 교육내용은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으로 제공되어야 한다(3.83)로 나타나 수강생으로서 컴퓨터 이용에 대한 중년기 여성들의 제한성과 중년기 여성들의 茶文化 교육내용구성에 대한 소극적인 의견반영 태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주부들의 수요와 전문가의 역할이 절충되어야 한다고 한 이기영 외(2003b)의 연구 결과와 견해를 같이 한다. 즉 주부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주부가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에는 주부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고, 주부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주부에게 필요한 내용은 전문가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茶文化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내용 및 교육프로그램운영은 주부들의 수요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조정역할, 기획역할이 통합되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2) 배경변인에 따른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운영 요구

배경변인에 따른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운영 요구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먼저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성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자의 학력(P<.01)과 향후 강사활동 여부(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대졸과 대학원졸 집단이 고졸집단에 비해, 그리고 향후 강사활동을 원하는 집단이 원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교육프로그램운영의 체계성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교육시설이용의 용이성에 대한 요구도에 있어서도 역시 학력(P<.05)과 향후 강사활동여부(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반영하여 학력이 높은 대학원졸 집단에서 그리고 향후 강사활동을 희망하는 집단에서 높은 요구도를

<표 13>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요구도 (N=330)

요인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운영	M	SD	영역별 요구도
요인1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성	교육담당강사는 茶文化 분야의 전문가이어야 한다	4.35	.67	4.29 (.48)
	茶文化 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4.30	.64	
	茶文化 교육에 관한 이론은 체계적이어야 한다	4.28	.64	
	茶文化 교육의 강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4.27	.60	
	교육내용은 실제 茶 생활에 유용해야 한다	4.24	.60	
요인2 교육시설 이용의 용이성	교육장소에는 다구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4.15	.65	4.04 (.52)
	茶文化 강의 내용은 흥미로워야 한다	4.12	.70	
	교육기관의 안내 및 관리직원은 친절해야 한다	4.07	.65	
	교육장소는 오고가는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3.93	.68	
	교육비는 저렴해야 한다	3.91	.74	
요인3 프로그램 제공의 다양성	茶文化 교육 관련 전문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4.08	.70	3.94 (.55)
	茶文化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얻는 것이 용이해야 한다	4.02	.60	
	교육내용 구성에는 수강생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3.85	.80	
	교육내용은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83	.79	
전체		4.10	.43	

<표 14>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운영 요구도의 집단간 차이 (N=330)

변인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성		교육시설이용의 용이성		프로그램제공의 다양성		전체	
		M	SD	M	SD	M	SD	M	SD
거주지역	서울(102)	4.34	.44	4.10	.50	4.04A	.48	4.17	.39
	대전(85)	4.21	.47	4.04	.45	3.77B	.54	4.02	.40
	대구(63)	4.35	.45	4.06	.49	4.00A	.50	4.15	.38
	전주(80)	4.26	.56	3.91	.64	3.94AB	.65	4.05	.53
	F값	1.49		1.99		4.12**		2.46	
종교	기독교(52)	4.31	.44	4.12	.56	4.07	.56	4.17	.45
	불교(166)	4.27	.47	4.00	.52	3.91	.57	4.07	.42
	천주교(59)	4.34	.46	4.09	.42	3.98	.48	4.15	.38
	무교/기타(53)	4.26	.54	4.00	.57	3.88	.52	4.06	.47
	F값	0.41		0.97		1.35		1.12	
학력	고졸이하(66)	4.14B	.53	3.99B	.59	3.77B	.55	3.98B	.48
	대졸(209)	4.30A	.46	4.01B	.50	3.96A	.54	4.10B	.41
	대학원졸(55)	4.43A	.42	4.20A	.49	4.09A	.54	4.25A	.36
	F값	5.83**		3.37*		5.49**		6.13**	
가족형태	부부자녀(224)	4.32	.48	4.04	.53	3.96	.55	4.12	.43
	부모부부자녀(35)	4.11	.52	3.98	.58	3.97	.57	4.02	.46
	부부(59)	4.29	.45	4.03	.44	3.87	.55	4.08	.39
	F값	2.76		0.22		0.61		0.78	
교육기관운영주체	평생교육원(86)	4.35	.52	4.03	.61	4.10A	.57	4.16	.48
	지자체(71)	4.21	.50	4.00	.44	3.71B	.53	3.99	.40
	법인체(173)	4.32	.43	4.05	.51	3.96A	.53	4.12	.40
	F값	1.72		0.23		8.97***		2.94	
교육수강기간	1년-3년미만(199)	4.27	.49	4.03	.51	3.87B	.57	4.06	.44
	3년-5년미만(72)	4.32	.42	4.03	.52	4.03AB	.49	4.13	.38
	5년이상(59)	4.33	.48	4.07	.55	4.09A	.49	4.16	.43
	F값	0.55		0.17		5.06**		1.52	
교육동기	개인적(244)	4.30	.45	4.03	.49	3.95	.54	4.10	.41
	대인적 (85)	4.24	.55	4.06	.61	3.94	.57	4.09	.49
	t값	1.08		0.25		0.02		0.06	
향후강사활동여부	활동원함(204)	4.35	.45	4.09	.52	4.06	.53	4.17	.40
	원하지않음(125)	4.19	.51	3.95	.52	3.76	.54	3.98	.44
	t값	8.69**		5.37*		23.48***		15.72***	

* p<.01 **P<.01 ***P<.001 (A, B, C에 대한 표기는 Duncan 분석결과를 나타냄)

나타냈다.

茶文化 교육내용에 관련된 교재와 정보자료 등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제공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는 거주지역(P<.01),

학력(P<.01), 교육기관운영주체(P<.001), 교육수강기간(P<.01), 향후 강사활동여부(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서울과 대구지역 거주 집단에서, 대졸과 대학원졸 집단에서, 평생교육원과 법인체 소속의 집단에서, 茶文化 교육수강경험이 5년 이상인 집단에서, 향후 강사활동을 원하는 집단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제공방법에 대해 높은 요구도를 반영하였다.

요약하면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 학력, 소속교육기관의 운영주체, 교육수강기간, 향후 강사활동여부에 따라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운영 요구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종교, 가족형태, 교육동기에 따라서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운영방법 전체에 있어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과 향후 강사활동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그리고 향후 강사활동을 희망하는 집단에서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성, 교육시설이용의 용이성, 프로그램제공방법의 다양성을 지닌 프로그램운영에 전반적으로 높은 요구를 나타냈다.

4. 茶文化 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

1) 茶文化 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

중년기 여성들의 茶文化 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5개의 항목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표 15참조> 茶文化 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도는 평균 4.05의 점수를 나타냈다.

5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것은 교육 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4.14)로 이는 중년기 여성들이 茶文化 교육을 받은 후 다양한 사회활동분야에의 참여 의사를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다음 순위는 교육수준의 단계별 체계화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4.12)였다. 이러한 결과는 茶文化 교육이 단계별로 내용의 깊이를 달리하여 구성됨으로써 기초교육과정을 마친 후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수강생 중 전문 강사를 꾸준히 양성해야 한다(4.07)는 요구 역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茶文化 교육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기회의 일환으로 전문 강사로서의 활동에 대한 중년기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기영 외(2003b)의 연구에서도 주부교육을 통한 강사의 발굴이 줄 수 있는 효과는 강사료와 교육활동을 통해 주부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주부강사들이 주부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러한 주부강사의 발굴과 활용은 교육대상인 주부들의 동기부여에도 보

<표 15> 茶文化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도 (N=330)

茶文化 교육 활성화 방안	M	SD
교육 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4.14	.65
교육수준의 단계별 체계화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4.12	.68
수강생 중 강사를 꾸준히 양성해야 한다	4.07	.76
교육이 종료한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4.04	.68
교육 종료 후 이수증이나 자격증을 수여해야 한다	3.90	.80
전체	4.05	.56

탬이 된다고 논의된 바 있다. 그밖에 茶文化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이 종료한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4.04)와 교육 종료 후 이수증이나 자격증을 수여해

<표 16> 茶文化 교육 활성화방안 요구도의 집단간 차이 (N=330)

변인		전문 강사 양성		지속적인 교류		생활에의 활용기회		단계별 체계화된교육		이수/자격 증수여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거주 지역	서울(102)	4.06	.76	4.00	.70	4.15	.60	4.19A	.59	3.90	.74	4.06AB	.48
	대전(85)	3.98	.77	3.93	.69	4.08	.68	3.85B	.75	3.71	.78	3.91B	.53
	대구(63)	4.13	.70	4.15	.63	4.15	.63	4.25A	.63	4.05	.79	4.15A	.55
	전주(80)	4.12	.83	4.12	.70	4.16	.72	4.22A	.71	3.95	.89	4.11A	.68
	F값	0.67		1.71		0.25		6.29***		2.45		2.75*	
종교	기독교(52)	4.23	.65	4.17	.55	4.25	.56	4.31	.61	4.02	.67	4.20	.47
	불교(166)	4.05	.80	3.99	.72	4.13	.67	4.10	.68	3.90	.81	4.04	.58
	천주교(59)	4.12	.67	4.08	.68	4.17	.62	4.10	.58	3.80	.89	4.05	.52
	무교/기타(53)	392	.85	4.02	.69	4.00	.68	4.02	.84	3.89	.78	3.97	.62
	F값	1.52		1.01		1.37		1.76		0.72		1.57	
학력	고졸이하(66)	3.77C	.78	3.86	.76	4.00	.70	3.89C	.81	3.67B	.88	3.84C	.64
	대졸(209)	4.10B	.75	4.08	.62	4.15	.64	4.11B	.64	3.89B	.74	4.07B	.53
	대학원졸(55)	4.35A	.70	4.11	.79	4.25	.58	4.40A	.56	4.22A	.83	4.27A	.51
	F값	9.11***		2.90		2.42		3.64***		7.49***		9.24***	
가족 형태	부부자녀(224)	4.06	.77	4.07	.89	4.16	.61	4.15	.72	3.90	.82	4.07	.56
	부모부부자녀(35)	4.14	.77	4.03	.66	4.09	.70	4.00	.69	4.00	.73	4.05	.61
	부부(59)	4.05	.80	3.90	.71	4.05	.78	4.08	.57	3.89	.79	3.98	.56
	F값	0.18		1.48		0.69		0,85		0.49		0.53	
교육 기관 운영 주체	평생교육원(86)	4.37A	.70	4.20A	.67	4.16	.68	4.19	.73	4.09A	.78	4.20A	.58
	지자체(71)	3.82B	.70	3.90B	.68	4.15	.63	3.96	.72	3.67B	.84	3.90B	.53
	법인체(173)	4.02B	.78	4.01AB	.68	4.12	.65	4.15	.63	3.89AB	.78	4.04B	.54
	F값	10.93***		3.78*		0.15		2.58		5.20**		5.70**	
교육 수강 기간	1년-3년미만(199)	4.04	.70	4.05	.66	4.12	.64	4.04B	.68	3.82	.83	4.01	.55
	3년-5년미만(72)	4.21	.82	4.14	.56	4.25	.55	4.26A	.61	4.06	.69	4.18	.49
	5년이상(59)	4.02	.88	3.90	.84	4.07	.76	4.22AB	.74	3.97	.81	4.03	.65
	F값	1.47		2.06		1.54		3.66*		2.49		2.48	
교육 동기	개인적(244)	4.07	.75	4.01	.68	4.13	.66	4.11	.66	3.89	.77	4.04	.56
	대인적 (85)	4.08	.80	4.13	.69	4.14	.62	4.16	.75	3.94	.88	4.09	.58
	t값	0.02		2.00		0.02		0.46		0.31		0.53	
향후 강사 활동 여부	활동원함(204)	4.22	.72	4.18	.59	4.24	.57	4.26	.61	4.09	.68	4.20	.48
	원하지않음(125)	3.84	.79	3.82	.76	3.96	.73	3.89	.73	3.58	.87	3.82	.61
	t값	19.73***		21.90***		15.07***		25.30***		34.65***		39.39***	

*P<.05 **P<.01 ***P<.001 (A, B, C에 대한 표기는 Duncan 분석결과를 나타냄)

야 한다(3.90)도 비교적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2) 배경변인에 따른 茶文化 교육활성화 방안 요구

배경변인에 따라 茶文化 교육활성화 방안 요구도에 있어서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활성화 방안 가운데 수강생 중 전문 강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요구에 있어서는 학력(P<.001), 교육기관운영주체(P<.001), 향후 강사활동여부(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학력에 있어서는 대학원졸 집단, 대졸집단, 고졸이하 집단의 순으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으며, 교육기관운영주체에서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소속한 집단이 지자체와 법인체에 소속한 집단 보다 높은 요구도를 반영하였다. 향후 강사활동여부에 있어서는 강사활동을 원하는 집단에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교육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에 있어서는 교육기관운영주체(P<.05)와 향후 강사활동여부(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평생교육원에 소속한 집단에서, 향후 강사활동을 희망하는 집단에서 더 높은 요구를 나타냈다. 교육 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 역시 향후 강사활동여부(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앞으로 강사활동을 하기 원하는 집단에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단계별 체계화된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는 거주지역(P<.001), 학력(P<.001), 교육수강기간(P<.05), 향후 강사활동여부(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서울·대구·전주지역이 대전지역에 비해, 대학원졸·대졸·고졸이하 집단의 순으로, 3~5년의 교육수강경험을 가진 집단에서, 그리고 향후 강사활동을 원하는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체계화된 茶文化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종료 후 이수증이나 자격증 수여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는 학력(P<.001), 교육기관운영주체(P<.01), 향후 강사활동여부(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대학원졸 집단이 대졸이나 고졸이하 집단 보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소속한 집단이 지자체나 법인체에 소속한 집단보다, 향후 강사활동을 원하는 집단이 원하지 않는 집단보다 높은 요구도를 반영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茶文化 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는 종교, 가족형태, 교육동기에 따라서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거주지역, 학력, 소속교육기관의 운영주체, 교육수강기간, 향후 강사활동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茶文化 교육활성화 방안 전체에 있어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거주지역, 학력,. 교육기관의 운영주체, 향후 강사활동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서울·대구·전주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소속하는 집단에서, 그리고 향후 강사활동을 희망하는 집단에서 茶文化 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소속하여 교육을 받는 중년기 여성들은 향후 강사활동을 원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들은 茶文化 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요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중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茶文化 교육의 내용,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방법, 그리고 茶文化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茶文化 교육에 대한 중년기 여성들의 요구도 분

석결과를 토대로 중년기 여성을 위한 앞으로의 茶文化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茶文化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 중년기 여성들의 교육동기, 향후강사활동여부,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을 중심으로 茶文化 교육내용구성의 방향을 제시하면 먼저 교육동기를 살펴볼 때 중년기 여성들은 茶文化 교육의 동기를 茶文化를 깊이 있게 배우고 마음의 수양을 쌓고자 하는 개인적 측면으로 밝히고 있어 앞으로 중년기 여성들을 위한 茶文化 교육의 내용은 마음의 안정과 수련을 위한 내면적 측면에 깊이를 둔 교육내용 구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중년기 여성들은 茶文化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도 차에 담긴 정신이나 차인의 마음가짐과 같은 교육에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중년기 여성을 위한 茶文化 교육은 茶文化에 나타난 선현들의 정신수양, 차의 기본 정신과 다도, 현대인의 차생활과 마음가짐 등을 깊이 있게 배우고 이를 함양할 수 있는 茶文化의 내면적인 내용에 보다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년기 여성들은 향후 강사활동 희망여부에 따라 요구하는 교육내용에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특별히 향후 강사활동을 희망하는 중년기 여성들은 茶文化 교육내용으로 과학적 분석시각을 갖는 차의 성분과 효능, 차생활에 관련된 예절의 내용, 한국의 차를 비롯하여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대용차 그리고 다구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어 茶文化 기초교육내용 구성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茶文化 교육내용의 요구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의 경우 서울·대구·전주 지역에 비해 茶文化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타지역에 비해 대전의 경우 평생교육원이나 법인체와 같은 규모를 갖춘 茶文化 교육기관보다는 소규모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관할의 문화원이나 여성회관에 소속한 중년기 여성들이 주로 설문에 응답한 것에서 비롯된 결과로 유추된다. 즉 이들 기관에서는 소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3~6개월의 단기 교육이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茶文化에 관련된 폭넓은 지식내용과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요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자체 관할 茶文化 교육기관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茶文化 교육내용에 대한 다양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지역 중년기 여성들의 茶文化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고취하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茶文化 교육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한 중년기 여성들의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무엇보다 체계적인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의 성격, 교육시설이용의 용이성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방법에 주안점을 둔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을 모색, 운영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프로그램의 체계성에 있어 중년기 여성들은 茶文化 분야의 전문가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각 교육기관에서는 茶文化 교육인구의 확산 가운데 보다 전문성을 갖춘 강사에 대한 자질평가와 강사양성의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중년기 여성들은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교육에 대한 요구를 높게 나타냈다. 이는 茶文化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이론교육과 차생활의 격식을 다루는 실습교육이 접목된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을 지향하는 바라고 하겠다. 이점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요구하는 실생활에 유용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茶文化 교육프로그램을 예시하면 한국의 茶文化에 관한 교육은 한국 차의 역사와 정신, 한국 차의 분류, 성분과 효능, 한국 차에 관한 예절

등의 기본이론교육을 토대로 한국의 行茶와 飮茶, 茶禮 실습을 상호 연계 짓는 차생활교육이 계획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년기 여성들은 茶文化 교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충분한 다구가 갖추어진 교육환경을 가장 원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의 안내직원의 친절성과 교통의 편리성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요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각 茶文化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생들의 교육시설이용의 용이성에 대한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의 제공방법에 대한 중년기 여성들의 요구에 있어서는 茶文化 관련 전문교재 개발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반면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교육에의 이용에는 제한성을 지니고 있으며, 茶文化 교육내용 구성에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중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茶文化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운영이 중년기 여성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하며, 그와 더불어 전문가들과의 상호 의견조정과 교육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셋째, 茶文化 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 중년기 여성들은 茶文化 교육 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에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이는 중년기 여성들이 茶文化 교육을 통해 개인에게 있어서는 깊이 있는 배움을 쌓는 여가활동으로의 茶生活을 원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을 도모하는 데 활용가능한 차생활의 영위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중년기 여성들이 茶文化 교육을 받은 후 실생활에서 사회봉사나 교육활동 등을 통해 배운 바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거나 전통문화 전승의 시연 차원에서 다례행사나 발표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각 지역별 여성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조사대상자 가운데 향후 강사활동을 희망하는 중년기 여성들의 경우 단계별 체계적인 茶文化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여성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향후 강사활동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앞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茶文化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를 함께 고려하여 기초교육과정에서부터 茶文化 강사로서의 자격 준비를 위한 절차와 교육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격려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법인체 교육기관에서는 지도자과정, 평생교육원에서는 자격증과정이 개설되어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강사로서의 준비를 위한 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6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관할 기관의 경우 일반교양으로서의 기초교육과정 개설에만 그치고 있어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교육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와 더불어 현재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茶文化 기초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교육기간과 교육시간을 검토하고, 조사대상 중년기 여성들이 희망하는 바를 조사한 결과 6개월~1년 미만의 기초교육과정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으므로 茶文化 기초교육과정을 6개월 미만의 일반교양과정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지자체 관할기관에서는 이 점을 고려한 교육기간설정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교육매체에 있어 茶文化 관련 비디오와 그림 혹은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교육에 대한 중년기 여성들의 요구가 있으므로 앞으로 비디오나 컴퓨터를 이용한 茶文化 교육매체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1. 본 연구에서는 茶文化 교육기관에 수강하고 있는 일부 중년기 여성들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茶文化 교육기관의 관리자, 교육프로그램 기획자, 교육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茶文化 교육의 내용,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방법,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중년기 주부들의 요구와 전문가의 역할이 절충될 수 있는 통합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2. 본 연구는 茶文化 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함에 있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과정을 포함하지 않고 기초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내용만으로 한정하여 조사 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중년기 주부들의 교육단계별 체계적인 茶文化 교육의 지속성에 대한 요구를 감안하여 茶文化 교육과정의 각 단계별 요구도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중년기 여성들은 茶文化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접목된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점을 고려한 茶文化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의 효과검증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구영본(2001). 韓國 茶生活 敎育場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경향신문(2003). 허영에 물든 茶문화 뒤업기.
3) 김희자(2004). 인간발달단계에 따른 다례교육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이기영 외(2003a). 주부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47-60.
5) 이기영 외(2003b). 주부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23-40.
6) 이일희(2004). 생태적 관점에서 본 茶文化 공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이정우(1997). 중년기 기혼여성의 여가태도와 여가행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79-96.
8) 이준민, 신화경(2005). 중년층의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61-172.
9) 이현숙(2001). 평생교육으로서의 다도교육실태와 사례분석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정동주(2003). 한국 차 살림. 서울 : 이룸.
11) 정영선(2003). 한국차문화. 서울 : 너럭바위.
12) 최운실 외(2003). 생애단계에 따른 평생교육체제 모델 탐색. 평생교육학 연구 9(3), 299-325.
13) 한정혜, 노영주(2000). 중년 여성의 40대 전환기 변화 경험과 대응에 대한 질적 연구. 가족과 문화 12(1), 67-91.

■ 인터넷 사이트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http://forwaman.or.kr/kinfor/kyungju.htm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edulife.kum.ac.kr
광양시 여성회관
http://www.gwangyang.go.kr
구미시 구미문화원
http://www.gumicc.or.kr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lifelong.kookmin.ac.kr
금오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knut.kumoh.ac.kr
대구시 동구여성문화회관
http://www.dong.daegu.kr

대전시 동구문화원
http://www.dgcc.or.kr
대전시 여성회관
http//www.metro.daejeon.kr
대전시 유성문화원
http://www.yuseong.or.kr
동서대학 사회교육원
http://www.dongseo-cei.ac.kr
문경시 여성복지회관
http://forwaman.or.kr/kinfor/munkyung.htm
부산시 여성문화회관
http://www.metro.busan.kr
부산여자대학 사회교육원
http://sahoi.pwc.ac.kr
상주시 여성복지회관
http://forwaman.or.kr/kinfor/sangju.htm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sungshin.ac.kr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lifetime.ajou.ac.kr
안동시 안동문화원
http://www.adcc.or.kr
안동시 여성복지회관
http://forwaman.or.kr/kinfor/andong.htm
영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yulife.yu.ac.kr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ysu.ac.kr
영주시 여성복지회관
http://forwaman.or.kr/kinfor/youngju.htm
옥수종합사회복지관
http://www.oksoocwc.or.kr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inform.wonkwang.ac.kr
이천시 이천문화원
http://www.cc2000.or.kr
청도군 청도문화원
http://www.cheongdo.or.kr
춘천시 춘천문화원
http://www.ccmunhwa.or.kr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http://woman.ipohang.org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honam.ac.kr
탐라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tamna.ac.kr